근대 르포르타쥬 문학의 잊혀진 역사

박 선 영

본 논문의 목적은 근대 르포르타쥬 문학의 잊혀진 역사를 복원하는 데 있다. 도시의 빈민가, 공장, 감옥 등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장소를 기자가 방문하여 현장의 사건들과 그 안의 생활상을 조사 보도하는 르포르타쥬 문학이 “탐방기”라는 근대 저널리즘의 한 형태로 조선에 출현한 것은 1920년대 중반부터이다. 이후 보다 발달된 장문 형식의 “탐사기”를 비롯하여, 르포르타쥬 문학은 수기･회상기･기행문･통신문학 ･르포 소설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. 언론의 검열이 엄격했던 식민지 조선에서 이 현장 보도 문학의 발전을 주도한 것은 신문이라기보다 <개벽>, <별건곤>, <혜성>, <제일선> 등 좌파 계열의 잡지들이었다. 이같은 르포르타쥬 문학의 근대사는 그 형식의 복잡성과 논픽션 문학을 경외시해온 평단의 관습 때문에 지금까지 잊혀져 왔으며, 또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“보도문학”이라는 역어가 30년대 후반 전쟁기 종군 기행문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되었던 까닭에 그 이전의 좌파 문인들의 성과가 묻혀 버리는 경향이 있었다. 잊혀진 르포르타쥬 문학의 근대사를 복원함으로써, 우리는 근대 실험 문학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르포르타쥬 형식을 도입, 발전시킨 카프계 및 여타 좌익 문인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재인식할 수 있다.